

국방 조직을 위한 축적형 지식

복리로 쌓이는 지식.

Derived Logic은 국방 조직을 위한 공유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사용자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축하는 온톨로지입니다. 시스템은 이로부터 논리를 도출하며, 그 논리는 다음 기여를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보직 교대 때마다 사라지지 않고 조직에 축적됩니다.

남는 지식

군 조직은 2~3년마다 참모진을 교체합니다. 교대할 때마다 조직이 알고 있던 것의 상당 부분, 즉 맥락과 인적 관계, 그리고 어렵게 얻은 판단력이 함께 떠납니다. 후임자들은 그중 많은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며,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세대를 거듭해 왔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을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뿐, 그것을 보존하기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개발자와 실무자 사이의 잘못된 양자택일

오늘날의 시장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기술 개발자가 되어 실제 업무로부터 점점 멀어지거나, 프로세스 전문가로 남고 그 지식을 체계화할 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역량이 한 사람에게 함께 갖춰지는 경우는 드물며, 따라서 지식과 시스템이 한곳에 존재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버려지는 산출물

사령부와 참모 조직은 여전히 문서, 슬라이드, 스프레드시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플랫폼을 도입한 경우에도 한 장교가 만든 도구를 후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새 슬라이드로 돌아가거나 다른 시스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노력은 들지만 축적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 평가의 근거 부재

아무것도 축적되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록 없이는 조직이 발전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적 작업은 시스템에 기록된 적이 없고 사람에게 머물렀으며, 사람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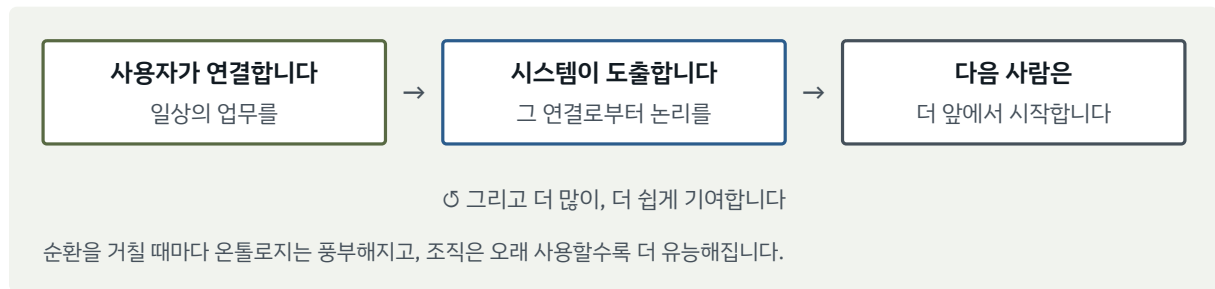
경험과 활력을 있는 공통의 매개체 부재

수십 년의 경험을 지닌 숙련자는 자신의 판단을 '지침'의 형태로만 전할 수 있으며, 지침은 다시 쓰이고 요약되고 전달될수록 그 의미가 흐려져 결국 의도가 모호해집니다. 신임자는 활력과 최신 역량을 갖추었지만 맥락이 부족합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양측은 서로 다른 매개체로 일하며 소통이 엇갈립니다. Derived Logic은 양측에 공통의 매개체를 제공합니다. 경험을 훈시가 아닌 구조로 담아, 뒤를 잇는 이들이 이를 직접 이어받을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 쌓여 가는 지식

Derived Logic이 제공하는 것은 또 하나의 화면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온톨로지, 즉 조직의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의사결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살아 있는 형식 모델입니다.

사용자는 그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이를 구축합니다. 과업을 그것이 충족하는 요구와, 결정을 그 근거와, 산출물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담 지식 엔지니어도, 별도의 데이터 사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기반 모델을 참조하지만, 각자는 직책, 비밀취급인가, 그리고 알 필요성이 허용하는 범위만을 보게 됩니다.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은 구조 자체의 속성으로서, 사후에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화면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이 직접 구축하고 사용할수록 축적되는 온톨로지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업무를 개선하는 지식

많은 플랫폼이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로 옮겨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프로세스가 건전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 왔다는 이유만으로 존속하는 프로세스도 적지 않으며, 이를 충실히 디지털화하는 것은 그 결함을 고착시키고 가속하는 일입니다.

Derived Logic에서는 지식이 축적되기 때문에, 시스템은 프로세스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검증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추론 방식을 결합합니다.

결정론적 추론

법령, 규정, 지시, 교전규칙을 절대적 제약 조건으로 기술합니다. 이는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감사가 가능합니다.

생성적 추론

그 제약 범위 안에서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탐색적 추론입니다.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며, 채택 여부는 실무자가 결정합니다.

귀 기관의 법령, 지시, 국가별 제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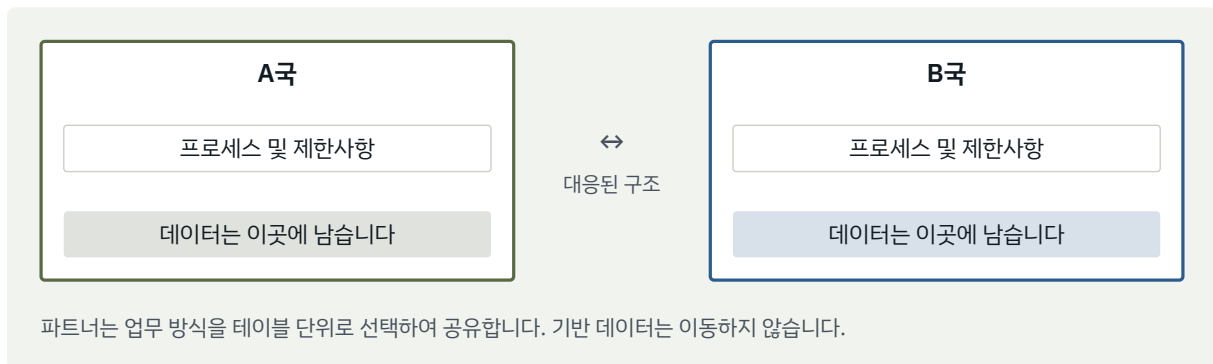
가드레일은 고객의 것입니다. Derived Logic은 이를 운용하는 기관의 법령, 지시, 국가별 제한사항(national caveats)을 따릅니다. 그 위에 서서 판정하는 심판자로 행동하지 않으며, 지휘관의 판단을 자신의 판단으로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법적 경계나 비밀 등급의 경계를 기록 없이 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의 지식으로 의사결정을 평가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그것이 내려진 시점에 유효했던 데이터 및 규칙과 함께 보존됩니다.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와는 별개로, 당시에 알려져 있던 사실에 근거하여 그 시대의 기준으로 결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과 사후의 시각으로 과거를 심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동맹국과 우방국이 공유하는 지식

각국은 자국의 법령, 제한사항, 절차가 기술된 독자적인 인스턴스를 운용합니다. 인스턴스 간에는 온톨로지를 상호 대응시킬 수 있어, 어떤 데이터도 자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은 채 동맹국과 우방국이 서로의 업무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국은 공유할 범위를 프로세스나 제한사항의 개별 테이블 수준까지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다른 동맹국의 ‘규칙집’을 보유한 파트너는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부터 그 동맹국이 어떻게 작전할지를 알 수 있으며, 작전 도중에 제한사항을 처음 발견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합 상호운용성은 현대전에서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제 중 하나이며, 대개 데이터 공유 요구에서 좌초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은 데이터도 주권도 내어주지 않고 하나의 전력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언어, 하나의 구조

연합은 여러 언어로 일합니다. 온톨로지의 개념은 공개된 다국어 참조 어휘에 연계되며, 각 대응 관계에는 유형(일치, 근접, 상위, 하위), 작성 주체, 날짜가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는 어떤 용어가 다른 국가의 용법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나온 지식

당사의 작업은 다국적 사령부에서의 작전 및 전역 계획 실무 경험과, 지식의 복리적 축적에 관한 논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Derived Logic은 미국 기업입니다. 처음부터 동맹국과 우방국에서의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각국과 그 요구사항에 관해 협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 주권, 각국의 법령, 국가별 제한사항은 나중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의 전제입니다.

기억하는 조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당사는 현재 국방 및 공공 분야의 소수 초기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이 인력 교대, 일회성 도구, 연합 조정과 같은 과제를 안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derivedlogic.ai

최종 개정일: 2026년 10월 15일

Derived Logic은 데이터 주권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데이터는 그 나라의 통제와 법령 아래에 머물러야 하며, 당사는 이를 설계의 첫 단계부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